

전북도 올 특별교부세 역대 최대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SOC 등 898억원 확보 전년보다 131억 증액... 지역현안 추진에 420억원

전북도가 올 한해 89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재난발생, 국가적 행사, 지자체 역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올해 전북도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17년 대비 131억원이 증가된 89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확포장, 공영주차장조성, 상수관로 사업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 전라감영재정조복원사업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 등에 총 42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과 서남대 폐교 결정으로 인하여 침체된 남원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특별교부세 긴급지원을 건의하여 총 35억원을 확보하는 등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내진보강,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노후위험교량 정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등 도민안정을 위한 사업에 383억원을 대거 확보했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각종 중앙공

모사업 선정 및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규제개혁우수사례경진대회,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총 60건에 95억원으로 삼각농정 농생명산업 및 융합미래산업 등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됐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관객을 감동시킨 전북 문화의 힘

전북문화관광재단 올 한해 '해적'·'뮤지컬 흥도' 마무리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18년도 새만금상설공연 '해적'과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 '뮤지컬 흥도'가 각각 11월 17일, 12월 8일에 마무리됐다.

'해적'은 4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2회, 1만5,0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뮤지컬 흥도'는 4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54회, 1만3,0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해적'은 새만금 관광명소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연상품으로 새만금 지역의 문화자원(개양합미 설화, 풍어제 등)을 활용한 판타지 러브스토리

의 기회를, 행사를 찾아온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우수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전북 문화의 힘을 보여줬다.

'뮤지컬 흥도'는 전북도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콘텐츠를 개발, 우수문화 콘텐츠 확보로 지역민들에게는 문화향유 증대와 전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민족도 증대를 위해 개발한 공연상품으로, 제3회 혼분문화상 수상작인 '흥도'를 원작으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조선시대 중기 혁명가 '정여립'의 사상과 삶, 그에 얽힌 동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여립의 손녀이자 불사의 몸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400년 동안 기다리는 신비로운 여인 '홍도'의 삶과 사랑을 뮤지컬로 극화한 작품이다.

'뮤지컬 흥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전주한옥마을과 조선시대 한양이 혼재하며, 이러한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홀로그램 등 영상기법이 활용됐다.

이 외에도 입체음향의 결합, 미니멀하지만 깊이감이 있고 다양한 공간 연출, 여운을 주는 음악 등으로 강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2018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 '뮤지컬 흥도'는 152회 공연이 진행됐으며, 총 관객객 수는 1만3,003명으로 한 회당 81.45명으로 전년도 대비 회당 약 13명이 증가했다.

또한, 공연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1.2점 상승한 84.8점으로, 특히 공연 내용은 82.2점, 재관람의향은 3.40% 상승해 84.20%로 작품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진행된 새만금상설공연은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향후, 신시도, 선유도, 국제무역항 등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콘텐츠 사업 등 창작품 생산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위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은 전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전북을 대표하는 공연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해당 사업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전북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전달하는 주요 문화콘텐츠로서 전북도를 매력적으로 알리도록 2019년도에는 더욱 완성도를 높이고,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공연관광상품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연말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 26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시장, 군수 및 안전담당 실국장들이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달걀 산란일자 표기 유통 투명성 강화

전북도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달걀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하는 달걀은 식용란산별포장업소에서 처리가 의무화 된다.

다만, 동물복지축산인증 또는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사육 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으면 직거래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식용란산별포장업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난간 인쇄기, HACCP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4분기 전북경기 3분기와 비슷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내 업체, 유관기관(총55여개)을 대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4분기중 전북도 경기는 3/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했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8년 4/4분기중 전국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소폭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강원권, 제주권이 다소 약화됐으며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모두 보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도, 내년 1월 15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2월 중순 대상자 선정

전북도가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2019년 1월 15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축사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사항 및 사업 신청 접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자 선정은 2월 중순에 이뤄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

업은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차단방역 시설지원 강화대책 등이 반영된 지침개정사항 및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1순위 선정조건에 포함되었다.

선정순위 1순위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은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 3km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자, 방역·방제시설 설치하려는 자, 동

물복지형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려는 자 등이다.

도는 또한, 사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며 악취 기준 초과 시 악취를 저감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없어도 용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용자사업 대상에 따른 이차율이 변경되었다.

지원기준은 용자 80%과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대상의 경우 이차율은 연리 1%, 대규모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